

지구의 70% 바다에서 건너온 일상의 지혜

호모 씨피엔스

윤학배 지음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호모 씨피엔스라? 호모 사피엔스를 잘못 봤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영어로 된 제목을 보고 나서야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HOMO SEAPIENS'. 바다에서 일상의 지혜를 언다라는 의미가 함축된 제목이다.

바다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다. 가장 읽을 수 없는 문장을 말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The ocean does not get wet by rain)를 꼽는다. 인생이란 바다에서 한번 짝 폭풍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삶의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품고 있다. 바다의 생리이며 본질이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바다의 신비이기도 하다.

윤학배의 '호모 씨피엔스'는 신인류의 바다 인문학을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30여 년간 바다와 관련된 공적생활을 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등의 근무 경험은 서양의 문화, 그 가운데 유럽인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용어나 지식 중에는 바다에서 연유하거나 관련된 것들이 많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바다'에서 알로드른 세상 이야기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important'가 항만에서 파생됐다. 단어는 'im+port+ant'로 구성돼 있는데, im은 '안으로'라는 뜻이며 port는 '항만'이라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동인도회사가 설립된 이후 유럽 여러 나라의 아시아 진출이 활발해졌다. 사진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조선소. <생각의 창 제창>

는 의미다. 그리고 ant는 형용사를 나타내는 접미사다. "항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깥 말하면, 항만 밖에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값이 나가고 귀한 것들은 항만을 통해 들어와 항만 내에서 보관했다. 이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항만 내에 있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항해사가 기록하는 항해일지를 로그 북이라고 한다. 일지를 열어 기재하는 것을 '로그인'이라 하고, 반대로 북을 닫고 기록을 마무리하는 것을 '로그아웃'이라 한다. 이처럼 인터넷의 용어 대부분은 바다와 선박 항해에서 나왔다.

사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어떤 이는 지구(地球)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구(水球)라고 부른다. 그만큼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역사를 보더라도 바다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리스와 로마는 지중해를 매개로, 신대륙 발견 이후에는 스페

인과 포르투갈(16-17세기), 영국(18-19세기)이 패권 국가였다. 물론 20세기에는 미국이 패권을 거머쥐었다. 바다는 무역과 경제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항공기를 통하는 것은 소규모의 고가품에 지나지 않는다. 커피의 예를 들어보자. 원래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고 원지대였다. 당시 세계 교역의 축인 중동의 예멘으로 건너갔고 이곳에서 중동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예멘의 커피 수출입 항구가 모카항이었고 여기서 모카커피가 탄생했다.

또한 바다 관련 직업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해운의 중심지 런던에는 해상 법률가, 회계사, 금융인뿐 아니라 선박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전문가 등이 있다. 국제 분쟁 시 이를 해결하는 중재인들도 세계 시장에서 활동한다. 여러모로 바다는 인류에게 소중한 보고다. 저자는 말한다. "오늘도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고. <생각의 창-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어=민중미술화가 김정현의 회고록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적 실천에 힘쓴 삶과 가치관을 담았다. 현실 문제에 천착하는 작품 활동을 해온 저자는 1980년대 군부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냈고, 주요 예술단체와 기관을 이끌면서 민중미술과 함께해왔다. 1부에서는 민중미술가로 지난 40년을 회고하고, 2부에는 그동안 썼던 칼럼을 모았다. <창비-2만원>

▲글쓰기 명상=글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명상 가이드북. 한국글쓰기명상학회 회장이자 마음과학연구소 소장인 저자 김성수는 기존 글쓰기 방법론에서 볼 수 없었던 원칙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순간적인 자기 마음을 포착해 단어나 문장으로 추출하는 놀이에서부터 시작해 육감, 글기, 당위, 상처들을 드러내고 마주할 수 있게 한다. <김영사-1만4800원>

▲르코르뷔지에 미워='근대건축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르 코르뷔지에의 일본 건축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건축 실무자이자 연구자인 저자 요시다 겐스케는 그의 주요 이론이 모두 담겼다는 프랑스의 '빌라 사보아' 등 대표작들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건축은 이론과 사상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행위라고 저자는 말한다. <도서출판집-1만2000원>



▲반도체 대전 2030=반도체 업황과 국내외 관련 정책,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국제관계 등 지금의 반도체산업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망라한 책이다. 한국경제신문 미국 실리컨밸리 특파원으로 근무 중인 황정수 기사는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이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중국 굴기를 향한 미국의 규제 공세 등 방대한 내용을 다룬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간간밤=몇 년 전 뉴스에 소개된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수컷 북부원코뿔소 수컷'에서 출발한 이야기.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코뿔소 노드과 버려진 앞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은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되어 여정을 함께 한다. 제2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주인공을 통해 사랑과 연대의 가치, 생명의 존엄을 전한다. <문학동네-1만8000원>

▲내 동고있는 힘이 좋아=국악 동요 그림책으로 오랫동안 국악을 연구하고 국악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 온 류형선이 작곡한 국악 동요들을 그림책으로 엮은 시리드다. 긴 똥, 짧은 똥, 두꺼운 똥, 얇은

똥, 황금 빛깔 누런 똥, 거무잡잡 검은 똥 등 각기 다른 모습의 개성 있는 똥들이 어딘가를 향해 신나게 달려간다. 마라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풀빛-1만3000원>
▲추 선생님의 특별한 미술 수업=저자 패트리샤 플라코가 화가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사연을 그린 책이다. 주인공인 트리아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걸 깨닫지만 자신이 없다. 트리아의 스케치를 본 선생님은 그에게 추 선생님의 특별한 미술 수업을 추천한다. 트리아는 이 수업을 통해 사물을 보는 법은 물론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책과콩나무-1만2000원>

소소한 이야기 속 큰 울림...따뜻하고 다정한 시인의 감성

계절 산문

박 준 지음



박 준 시인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 만'을 마음에 담아 둔 이들이거나, 그의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나 '우리가 함께 잠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까'의 정서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시인의 새 책 '계절 산문'를 받아들고 마음이 따뜻해질 듯하다.

박 준 시인이 4년만에 펴낸 에세이집 '계절 산문'은 세상을 보는 시인의 따뜻하고 다정한 시선이 담긴 글 70여편을 담고 있다. 경어체로 써내려간 글들은 전작들의 감성을 그대로 있고 있으며 '시처럼' 읽히는 짙직한 글들은 울림이 크다.

'일월 산문'부터 '십이월 산문'까지 펼쳐지는 다채로

운 글들은 계절의 감각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으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오월산문-바둑이집'은 얼굴에 큰 점이 있는 걸 마뜩잖아하는 사람에게서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청을 받은 화가 이야기로 글을 풀어내었다. 아마도 화가는 점을 그대로 그릴 수도, 그리지 않을 수도 없어 고민에 빠질 터다. 시인은 그 사람의 옆으로 가서 스케치를 시작해, 점이 보이지 않는 한 쪽 얼굴을 그려냈다고, 별이 많은 밤에 바닥에 누워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점처럼' 찍혀 있는 상처들을 대할 때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어떻게 직면하거나 애써 외면해야 하는지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세상을 떠난 허수경 시인과 얽힌 글도 애뜻하다. '선물'을 주제로 쓰인 글에서 저자는 '수경 선배'의 고향 진주로 여행을 떠나 진주중앙시장에서 진주비빔밥을 먹고, 그녀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가 교문과 담벼락 사이로 '사람을 기다리는 표정을 짓다 돌아온 후' 선배의 시집을 읽는다. 그에게는 진주비빔밥도, 학교 앞에서 한가하게 발을 옮기

는 시간이 모두 선물이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받은 그의 '시'는 "사람은 좋아하는 이에게 좋아하는 것을 건네는 법이기에"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고 말한다.

유리공장을 탐방하고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야기가 담긴 '다시 노동에게'는 담담한 시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글이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지만 가마 쪽으로 몇 걸음만 걸어가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공기가 물러오는 곳에서, 도시락을 펴고 단 몇분만에 점심 식사를 마치는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세상이 노동에게 어느 한번 친절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글을 맺는다.

또 박두진 시인과 조지훈 시인의 우정을, 두 사람이 나누는 유머한 시 '완화삼'과 '나그네'를 통해 들려주는 글 '뱃'을 비롯해 '혼자 밥을 먹는 일', '장마를 기다리는 마음' 등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문체에 담겨 있다. <달-1만4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